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76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 학위논문

영어 주어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지 혜

2015년 2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영어 「주어」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어 주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bjects in English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지 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영어 주어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남 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지 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지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경 자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 희 조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남 근 (인)

2014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ii

Ⅰ. 서 론 ····· 1

Ⅱ. 주어의 속성 ····· 2

1. 통사적 분석 ····· 2

1.1. 위치 ····· 2

1.2. 격 ····· 5

1.3. 일치 ····· 9

1.4. 도치 ····· 11

1.5. 부가의문문 ····· 12

1.6. 인상 ····· 12

2. 의미적 분석 ····· 14

2.1. 주어의 의미역 ····· 14

2.2. Dowty의 분석 ····· 17

2.3. 논항의 주제성과 주어 ····· 20

3. 화용적 분석 ····· 24

3.1. 주어-서술어 도치 ····· 24

3.2. 주어 외치 ····· 26

3.3. 주어생략 ····· 27

4. 비명사구 주어 ····· 28

Ⅲ. 결 론 ····· 36

참고문헌 ····· 3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Subjects in English

Kim Jihye
Adviser : Prof. Lee Nam-geun Ph.D.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Subjects in sentences are easy to identify but difficult to define. For an answer to the question "How does a subject in English defin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subjects through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analyses. It also examines a variety of categories of subject and non-DP subjects that seem to be DP subjects.

Firstly, this thesis syntactically analyzes on subjects in English. Its position is developed from NP dominated by S to Spec-TP and generally, the subject in a clause has nominative case. The subject agrees with the person-number inflection of the verb in a finite clause by 'Feature-copying', by which a probe searches for a c-commanded goal to agree with and then unvalued features on the probe are valued by the goal.

In a Yes/No question, T moves from its normal post-subject position into pre-subject position, it is called 'Subject-Auxiliary inversion (SAI)'. Also, the subject is repeated in tag questions and raised in a clause with seem-type verbs.

Secondly, the subject is semantically analyzed an external argument, which is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located outside the maximal projection of the verb. Thus the subject can have thematic roles as an argument. Also,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subject is realized by Dowty' s proto-agent role and topicality.

In pragmatic analysis, the speaker chooses 'subject-VP inversion' for highlighting the significant new information with the side effect of lively expressions. It helps the hearers to feel more comfortable during discourse situation. And when the subject is sentential, it is extraposed to suggest the proposition of the sentential subject as focal information regardless of the speaker`s belief in the truth of the proposition. Also, subject ellipsis occurs to avoid repeated elements in the situational context or the linguistic context.

Finally, the subject is realized by prepositional phrases, adjective phrases, adverb phrases, finite clauses, infinite clause, and small clause as well as noun phrases(=DP). Among them, PP, CP, and AP subjects called non-DP subjects can exhibit behaviour of DPs such as inversion, raising, and agreement. In additional, conjoined CPs and PPs in subject position can licence quantificational adverb *equally.* Lastly, CPs and PPs can also license emphatic reflexives like DP subject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주어는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오늘날까지 주어는 많은 이론에서 다양하게 논의 되어오고 있다. 전통문법에서 주어는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의 형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1차어(primary)로써 간주, 동사와의 수 및 인칭의 일치와 격의 표시, 어순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Jespersen 1949). 한편 Chomsky(1965)를 중심으로 한 변형생성문법은 주어를 문장의 직접 지배를 받는 명사구라 정의내리고, 관계문법의 Permutter & Postal(1984)은 주어를 문장을 구성하는 본원소로써 정의하고 보다 근원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기능문법의 Dick(1978)은 어떤 상태를 제시함에 있어 시발점이 되는 실체를 주어라고 정의하였다. 이 외에도 주어는 많은 언어표현에서 행위자(agent)나 주제(topic)로 해석되어지면서 의미적으로나 화용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주어는 끊임없이 논의되고 연구되어지지만, 이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지 학자들 간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자들의 다양한 제안을 기초로 하여 주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어에 관한 그들의 공통적인 제안은 주어가 형식적으로 중요하다고 표시되는 성분이라는 점이다. 형식적인 중요성은 성분 그 자체를 어순이나 형태상의 격, 동사와 일치 등에 해당하는 통사적 연산에 의해 명시되어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2장에서 주어의 위치나 일치관계, 격, 도치, 부가의문문, 인상 등과 같은 다양한 통사적 연산 살펴봄으로써 주어가 문법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요소임을 논증한다. 이어서 의미적으로 주어가 의미역을 가지는 논항이라는 점을 필두로 하여 Dowty(1991)의 원형역 접근 이론과 주제성에 관련하여 주어를 해석해본다. 또한 정보의 관점에서 담화 혹은 문장에서 주어가 도치되고, 이동되는 경우와 생략되는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주어를 화용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Aarts(2008)가 제안을 바탕으로 주어로 실현되어지는 명사구와 이외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열거해보고, 이들 비명사구 주어 구문들이 명사구 주어 특징을 갖는 경우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주어로 쓰일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 후 3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주어의 속성

문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주어는 언어 이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고 정의되어져 왔다. 본 장에서는 주어의 자질에 대해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했던 Keenan(1976)과 그 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주어의 속성에 관해 살펴보므로 주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어야하고, 이것은 외현적이거나 내현적이다. 둘째, 외현주어의 위치는 동사 앞이다. 셋째, 주어는 동사의 수와 인칭에 일치한다. 넷째, wh-의문문을 제외하고, 주어와 정형소는 의문문에서 도치된다. 다섯째, 주어는 부가 의문문에서 반복되어진다. 여섯째, 주어는 인상을 겪는다. 일곱째 종속절에서 통제된 논항이 이것의 주어이다(Chomsky, 1957). 여덟째, 주어는 특정 의미역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행동을 나타내는 술어가 있는 능동문의 주어는 주로 행위자역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주어는 대개 담화의 화제/주제이다 (Kuno, 1976).

위의 열거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의 속성에 대해 통사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분석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주어의 범주에 해당하는 명사구 주어에 대해 살펴보고, 그 외에 주어로 실현될 수 있는 비명사구 주어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1. 통사적 속성

‘주어’라는 용어는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짐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1.1. 위치

일반적으로 주어는 평서문에서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명사구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가 소위 SVO라고 나타내는 영어의 어순을 통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어의 위치가 어떻게 이처럼 나타나는지 학자들의 제안을 살펴보도록 하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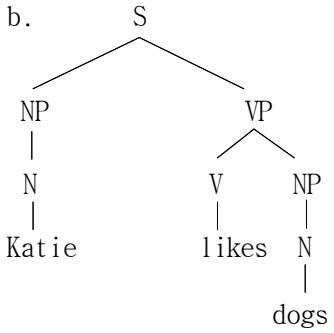
초기 생성문법인 구구조문법의 관점에서 Chomsky(1965)는 주어의 위치는 다음 (1)과 같은 통사적 구조를 갖는다고 제안한다.

(1) Subject-of-S: [NP, S]

주어는 S의 직접 지배를 받는 NP로 해석되어지고 PS규칙에 의해 기호화 되어 수형도로 나타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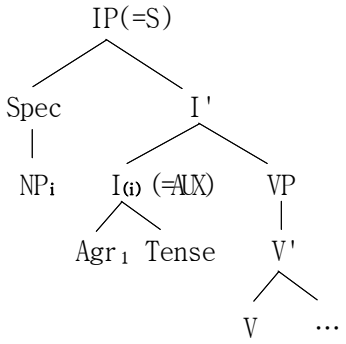
(2) a. Katie likes dogs.

b.



위의 (2)은 주어가 S의 직접 지배를 받는 왼쪽의 첫 번째 절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초기의 생성문법이 핵계층이론으로 발전되면서 이전의 S는 INFLECTION(INFL: I)을 핵으로 하는 구조의 최대투사인 IP로 표기되어진다. 이는 아래 (3)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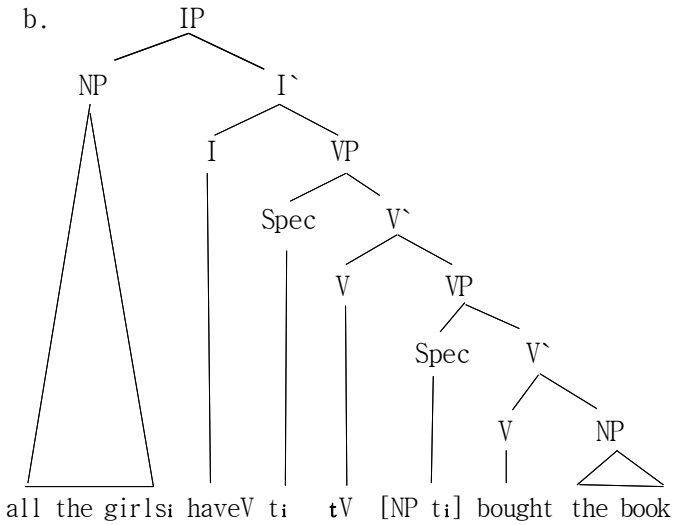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핵계층이론에에 따르면 절의 구조에 있는 주어 NP는 IP에 의해 직접 관할되어지는 지정어(Spec) 위치에 있고, I 아래의 Agr와 IP의 지정어인 NP주어의 동일지표는 이들간의 성, 수, 인칭의 일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주어는 I와 Spec-Head가 일치하고, [Spec, IP]로 정의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Larson(1988)의 '주어는 [Spec, VP]에서 VP 내부적으로 생성되어 정형절의 I로부터 격을 할당 받기 위해 표면구조에서 [Spec, IP] 자리로 이동한다'는 동사구내 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아래(4)의 Haegeman(2001: 234)이 제안한 예를 보자.

(4) a. All [Both] the girls have bought the book.

b.



(4b)의 예문은 주어가 [Spec, VP]에서 기저 생성되어, 상위에 있는 [Spec, VP]를 거쳐, [Spec, IP]로 격을 받기 위해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에 Larson(1988)은 동사구 패각구조(VP-Shells)[1]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VP 분할가설(Spilt-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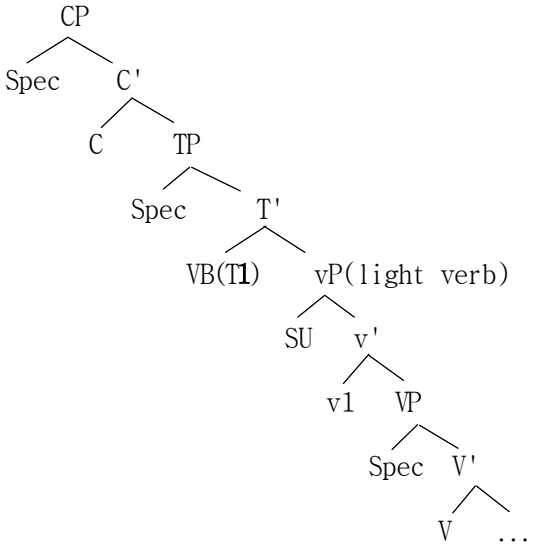
1) 서영미(1996)는 Larson(1988)의 동사구 패각구조 설정 동기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Larson이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비대칭 현상으로 인해 이와 같은 제안을 하였으며, 여기서 비대칭현상이란 성분통어의 관점에서 간접 목적어는 직접목적어의 영역 내에 있지 않고, 직접목적어는 간접목적어 영역에 있는 것을 말한다. Larson은 위와 같은 문제를 성분통어를 가정함으로써 설명한다. 즉, '이중 목적어구문에서 간접목적어는 직접목적어를 성분통어하는 반면, 직접목적어는 간접목적어를 성문통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ypothesis)을 제안한다. 이에 Chomsky(1994)는 VP-분할가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며, 공범주 경동사 v를 설정하여 V가 인상 부가 되는 것을 제안한다. 아래 (5)의 구조를 보자.

(5)



따라서 주어의 위치는 [Spec, vP]가 되고, 여기에서 주어는 확대투사원리에 의해 자신의 형태론적 자질을 검증 받고자 [Spec, TP]로 이동한다고 본다.

주어의 통사적 위치는 S의 직접 지배를 받는 왼쪽의 첫 번째 절점에서 TP의 지정어 위치로 변화, 발전되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1.2. 격

영어의 정형절에서 주어는 대개 외현적으로나 내현적 형태에서 주격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대명사의 경우 주격과 대격 혹은 소유격이 분명하게 구별 되어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통명사의 경우 어형에 격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어떠한 격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알 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없다. 다만 그 위치나 기능에 의해서 추상적으로나마 파악되어질 뿐이다. 따라서 보통명사들을 대명사로 바꾸고, 그 대명사가 부여받는 격을 통해 어떤 형태가 요구되는지 고려해봄으로써 격의 속성을 파악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6) a. Tom likes Mary.

위의 예문에서 Tom은 주어의 위치에서 있는 것으로 보아 주격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명사로 바꾸면 He가 되고, Mary는 likes 동사 뒤에 위치하여 목적격을 소유하므로 이를 대명사로 바꾸면 her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장이 보통명사를 사용하여 나타낸 문장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격의 속성을 간접적으로 나마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래 (7)에서 Chomsky(1981: 170)가 제안한 격 부여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7) a. NP is nominative if governed by AGR.
b. NP is objective if governed by V with the subcategorization feature : ___ NP (i.e. transitive)
c. NP is oblique if governed by P
d. NP is genitive in [NP ___ x']
e. NP is inherently case-marked as determined by properties if its [-N] governer.

그는 (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영어에서 명사구에 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격부여자(Case assigner)는 시제와 타동사, 그리고 전치사 이 세 가지라고 제안한다. (7a)에서 보이듯 AGR은 시제를 갖춘 절의 주어를 지배함으로 주격을 부여하고, (7b)와 같이 타동사는 인접조건(adjacency)[2]을 준수 하여 바로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지배함으로써 목적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7c)의 경우와 같이 전치사는 그 뒤에 오는 목적어를 지배하여 목적격이나 사격을 부여한다. (7d)는 소유격 배당에

2) 격부여의 인접조건은 Chomsky(1994)의 필수이론에서 포기된다.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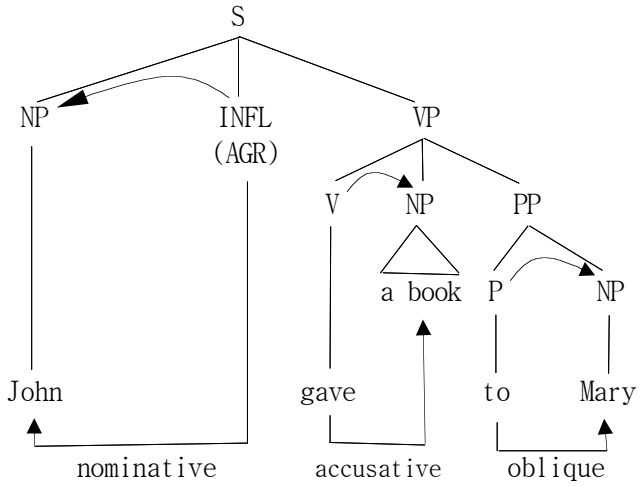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해서, (7e)는 고유격을 부여받는 조건에 해당한다.

위의 (7a)를 기준으로 주어가 주격을 부여받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8) a. John gave a book to Mary. (신인철: 2003)

b.



(8b)의 수형도에서 INFL(AGR)는 격 부여자로써 NP 'John'을 c-command[3]한다. 따라서 'John' 은 INFL에 의해 지배되어지므로 주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 외에도 살펴보면, 동사 'gave'는 뒤에 오는 NP 'a book'을 c-command 하고 있으므로 'a book'에 목적격을 부여하는 격부여자이며, 전치사 'to' 역시 뒤에 오는 NP 'Mary'를 c-command하여 격을 부여한다. 여기서 'Mary'는 사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Chomsky(1992)는 최소주의에 이르러 점검이론에 대해 제안하며 종래의 격 부여이론을 지정어와 핵(Spec-Head)의 구조적 관계에서 점검되어지는 것으로 수정한다. 그는 점검자질을 ø-자질, 격자질, [+WH]자질, 그리고 시제자질 이 네 가지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논의한다.[4] 이들은 점검자를 통해 점검되어지는데,

3) α c-commands β if and only if the first braanching node dominating α also dominates β, and α dose not itself dominate β. (Riemsdijk/Williams, 1986: 142)

4) 점검자질(Chomsky 1992)
a. ø-자질: 인칭, 수, 성등의 대명사적 자질
b. 격자질: 모든 명사구의 격 자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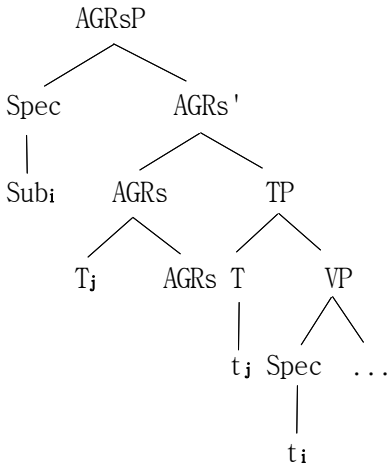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ø-자질은 AGR에 의해, 격자질 가운데 주격은 T에 의해, 대격은 V에 의해, [+WH] 자질은 C에 의해, 마지막으로 시제자질 역시 T에 의해 점검되어진다.

이에 주격을 점검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주격은 지정어와 핵의 일치관계, 즉 NP와 AGR의 일치관계로 구현되어지므로, 격의 특성상 T는 AGRs로 핵 이동(head - movement)하고, 주어는 명시적 논항 이동(argument-movement)을 함으로써 그 자질을 점검받고자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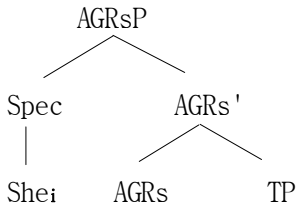
(9)



위의 수형도는 T의 주격을 점검하는 명사구 자질은 AGRs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주어의 격을 지정어와 핵 일치에 의해 점검해주고, 그 명사구 자질은 방출되어 없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예문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0) a. She loves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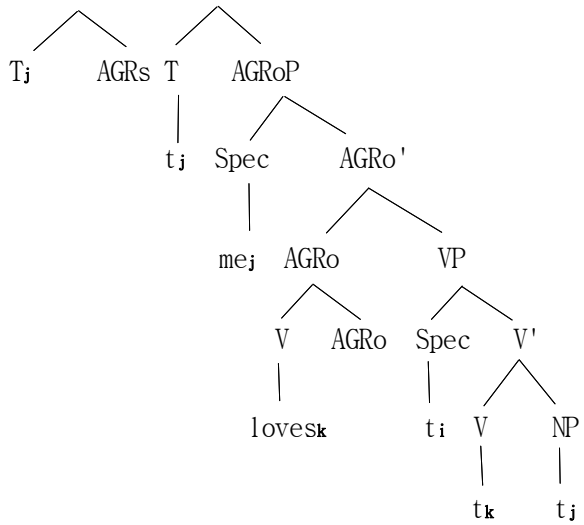
b.



c. [+WH]자질: 모든 의문사구의 [+WH]자질
d. 시제자질: 모든 동사의 시제 자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의 구조는 격 점검을 위해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이동한 것으로, T가 AGRs로 핵-이동하고, 동사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She'는 AGRs의 지정어 자리로 명시적 이동을 한다. 이때 'She' 는 지정어와 핵 일치관계에서 T에 의해 주격을 점검 받는 것이다.

따라서 격의 문제는 Chomsky의 이론이 발달함에 따라 격 부여(1981)에서 격 점검(1992)으로 변화 되었고, 이것은 Chomsky(1998)에서 점검의 개념을 일치와 결부하여 탐침(probe)과 목표(goal)라는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격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일치의 문제에서 함께 다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어가 외현적으로 문장에서 나타날 때 대개의 경우 주격(nominative case)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5)]

1.3. 일치

5) 아래 보기와 같이 주어는 주격이 외에도 다양한 격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ex) i. She must be keen [for <u>him</u> to meet them]. (대격주어)
ii. They have decided [<u>PRO</u> to help you]. (PRO주어)
iii. the <u>enemy's</u> destruction of the city. (소유격 주어) (Radford 200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어는 일반적으로 그 뒤에 오는 동사의 수와 인칭에 일치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예를 보자.

(11) a. The minister knows the candidates.
b. The candidates know the minister.

위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시제이면 -s로 굴절되어지고,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동사가 굴절되지 않는 원형의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Huddleston and Pullum(2005:237)은 동사의 인칭과 수 굴절은 정형절에서 주어에 일치한다고 제안한다.

이전의 전통생성문법에서 일치는 정형조동사에 해당하는 인칭과 수 굴절소들이 TP의 핵인 T자리를 차지하고, 그 주어가 TP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정어와 핵어(Spec-Head)의 관계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Chomsky(1998)는 시제(T)와 지정어(Spec-TP)의 일치에 관하여 '탐침(probe)' 와 '목표(goal)' 라는 두 용어를 도입하여 설명한다. 탐침은 자기와 일치되기 위해 성분통어(C-command)되는 목표를 찾고, 탐침에서 값을 갖지 못한 자질들은 목표에 의해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자질 복사 (Feature-Copying)' 라고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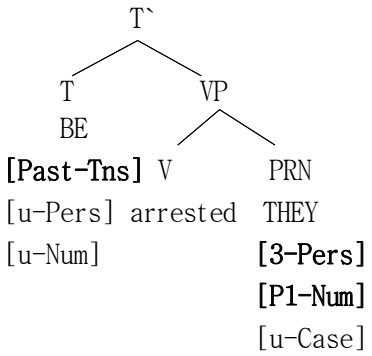
(12) Feature-Copying: If α is valued for some feature [F] and β is unvalued for [F] and if β agrees with α, the feature-value for [F] on α is copied onto β (Radford 2004:285).

자질복사는 α가 어떠한 자질에 해당하는 [F]로 평가되고, β는 미평가된 자질 [F]라면, 그리고 β가 α와 일치할 경우, α의 [F]에 대한 자질평가가 β로 복사되어지는 것이다. 아래 (11)예를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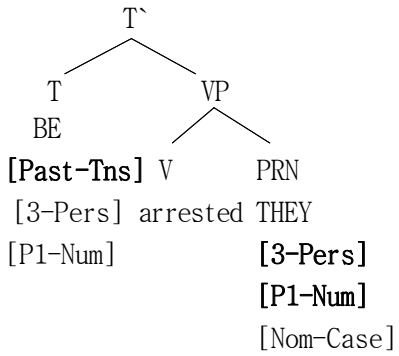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3) a.



b.



자질 복사에 따라, ‘THEY'의 인칭/수자질의 가치는 (a)의 BE의 미평가 인칭/수자질들([u-Pers, u-Num])이 'THEY'에 의해 수반되는 [3-Pers, P1-Num]가치로 할당되기 하기 위해서 BE에 복사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a)에서 값이 없는 BE의 ø-자질들은 그것의 일치된 목표인 'THEY'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b)에서 음성구조(Phonetic Form)에서 3인칭 복수 과거시제인 'were'로써 발음되어진다. 또한 일치 관계와 더불어 명사적 목표 'THEY'는 3인칭 복주 주격인 'they'로 평가되어 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T의 EPP자질에 의해 'they'는 구조적 주어의 자리인 'were'의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1.4. 도치

일반적으로 도치는 서술문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NP와 조동사인 Aux의 위치가 바뀌는 것으로 Yes/No의문문을 만들 때 적용되는 현상이다. 아래의 예를 보자.

(14) a. <u>You</u> <u>will</u> marry me.
b. <u>Will</u> <u>you</u> marry me?

위의 (14)예문에서 보다시피 주어 'John'과 T에 해당하는 ‘will'은 yes-no 의문문에서 T가 주어인 한정사구(DP)를 선행하여 도치되어진다. 이 현상을 주어조동사 도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ubject-Auxiliary Inversion, SAI)라고 일컫는다. 위의 (b)의 S-structure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_{CP}[_{C}\ will_i][_{TP}\ you[_{T}\ t_i][_{VP}\ marry\ me]]]$

구구조문법(1965)은 주어 조동사 도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기술한다. 첫 번째는 주어가 T 다음으로 이동하는 것, 두 번째는 T가 주어의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더 우세한 제안이라고 받아드려지는데 조동사가 TP에서 핵어 T의 위치로부터 CP의 핵어 C의 자리로 이동하는 T-to-C 이동, 보다 일반적으로 핵어 이동이라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Baker(1970)는 의문 보문자는 영 의문부분사 Q[6]에 의해 채워지고, Q는 T부터 C까지 C의 위치를 채우기 위해 조동사를 끌어오는 것으로 가정되어지는 조동사 이동에 대해 보다 힘을 실어주었다. 따라서 주어 조동사 도치는 주어는 그 자리에 있고, T가 이동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1.5. 부가의문문

부가의문문은 평서문에 붙은 생략된 근접 의문문이다. 부가의문문은 진술에 대한 확인이나 강조, 정중함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 영어에서 부가의문문은 선행하는 문장의 형태에 기초를 둔 조동사와 대명사로 구성된다. 조동사는 주절의 시제와 상, 법조동사와 일치해야만 하고, 대명사는 선행하는 평서문의 주어와 일치해야 한다. 부가의문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6) a. You like him, don’t <u>you</u>?
b. The sheriff couldn’t see us, could <u>he</u>?
c. The police are coming soon, aren ‘t <u>they</u>?

(17) The others you know, don’t <u>you</u>?

6) Chomsky (1995)는 영 의문보문자 Q는 본래 첨부되어지고 강한 시제자질을 수반하므로, 따라서 오로지 시제를 가진 조동사가 C로 이동하고 Q에 붙는다고 상정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6)~(17)의 문장들은 부가의문문을 통해 문장의 주어를 진단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낸다.

1.6. 인상

주어 인상은 비정형절 또는 부정사절인 삽입절의 주어가 주절로 상승하여지고 여전히 삽입절의 주어로써 해석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Subject-to-Subject Raising' 이라 일컫는다.

상승구문은 대개 주절의 주어 DP와 보통 비정형절 보문자인 하위절의 TP는 하나의 의미논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다음과 같은 상승동사는 seem, appear, be likely, happen등이 있다. 아래 seem을 이용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18) [$_{DP}$ John$_i$] seems [$_{TP}$ t$_i$ to be happy]

위 예문의 동사'seem'은 명제논항을 취하는 1항술어이다. 따라서 이것은 [John to be happy]라는 논항을 갖고, DP인 'John'은 'to be nice'의 주어이다. 그러나 인상 운용으로 인해 'John'이 'seem'의 주어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John'은 T에 일치함으로써 'seem'동사가 인칭과 수의 굴절을 통제 받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문법적 주어이다. 그러나 이 경우 논리적인 주어는 아니다. 즉, 위의 예문에서 'John'은 인상동사와 의미관계를 갖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인상 술어는 외부논항이 없고, 상승된 주어는 오로지 삽입절의 동사로 부터만 의미역을 받기 때문이다.[7]

---

7) 인상구조에서 삽입절의 동사만이 주어에 의미역을 할당한다는 가정에 대한 근거는 소위 동사의 선택제약이라 불리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 동사들의 경우 의미역을 할당할 요소들에 특정 선택적 제약을 두는 것이다.
i) a. Mary/*The computer kissed John.
b. Mary/*The computer appeared to kiss John.
a의 예는 DP인 the computer가 동사의 주어로 기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동사 kiss가 의미선택에 있어서 유생성을 갖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음 b의 경우 역시 선택적 제약이 적용되었으나, 이 경우에는 인상동사가 주어에 어떤 선택 제약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간략히 말하자면, 절에서 본동사인 상승술어[8]는 외부논항에 의미역을 할당하지 못하고 이것은 심층구조에서 TP의 지정어가 비어있게 한다. 결국, 확대투사원리(EPP)[9]에 따라 외현적으로 DP에 의해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삽입절의 주어는 격이 없으나, 격 표시는 필요하다. 격을 할당하고 확대투사원리를 충족하기 위해, 삽입절의 주어는 주절의 비어있는 TP의 지정어 자리로 상승되고 주격을 할당 받게 된다.

따라서 절을 상승술어의 보어로 만들어보고 상승술어의 주어중심 요소를 두어 문법적 여부를 따져봄으로써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판단할 수 있다.

2. 의미적 분석

앞서 A에서는 다양한 통사적 속성에 의해 주어가 검증 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문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주어가 문법의 기능을 하는 기능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미적 분석에 있어서 주어는 의미역할에 관련한 논항으로써 이해되어 져야 한다. 즉, 문장의 술어는 그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논항을 필요로 하는데 이 가운데 술어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외부 논항(external argument)이라 일컫고, 이를 주어라 지칭한다.

2.1. 주어의 의미역

의미역이란, 술어와 문장의 논항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이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제안되어 진다. 이 가운데 널리 인정되어지는 주요 의미역으로는 행위자역, 수동자역, 대상역, 경험자역, 목표지역, 수혜자역, 근원역, 도구역, 장소역, 명제역(Aarts: 2008)등이 있으며 Keenan(1976)은 주어는

8) believe, consider, expect, imagine, seem, appear, happen, begin, likely, certain, etc.
9) Chomsky(1981, 1982)는 아래의 예문을 비교하기 위해 EPP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i)a. *Seems that Jin is here. b. It seems that John is here. (Chomsky 1981)
그는 EPP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the subject of a clause is obligatory in English and similar languag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특정 의미역과 관련이 있으며 능동문에서의 주어는 주로 행위자 역이라고 제안한다. 아래의 (19)예를 보자.

(19) a. Tommy drove the car.
b. Racoons ate our food.
c. The wind opened the door.
d. The sun melted ice cream.

(19a)의 주어 Tommy는 고의적으로 술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행위자를 나타내고, (19b) 역시 유생성을 가지고 고의적인 행위를 한 행위자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행위자 역은 대개 유생성(animate)을 가져야 하나, (19c-d)의 주어 'the wind'와 'the sun' 같은 자연력 역시 행위자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이는 자연력이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 힘으로 인해 술어의 행위가 선동되어지는 까닭이다(문경숙: 1989).

그러나 특정 의미역만이 주어로써 기능한다는 Keenan의 주장은 다음의 예문을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20)의 예를 보자.

(20) a. He opened the door with a key.
b. The key opened the door.
c. The door opened.

위의 세 문장은 모두 능동문에 해당하고 (20a)은 주어로 행위자 역을 받았으나, (20b)의 주어는 술어가 수행되어지는 수단인 도구역이, (20c)에서는 논항이 행위를 겪으므로 상태가 변화 되어지는 수동자역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능동문에서 특정 의미역인 행위자 역이 사용된다는 Kennan의 제안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 만 아니라 영어에는 나타날 수 있는 문장의 양상이 능동문 외에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문법적 주어와 그 의미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몹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래 (21) 예문을 보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1) Our food was eaten by racoons.

위의 예문은 (19b)를 수동문으로 바꾼 것으로 앞서 능동문의 주어였던 'racoons' 는 수동문에서 by의 목적어로 이동하므로 표면 구조에서는 더 이상 문법상의 주어로써 기능하지 못하고, 의미상의 주어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Comrie(1981)가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 관계와 의미역은 일대일 사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관계의 접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오고 있는데 Frawley (1992: 240)은 어떻게 몇몇 의미역이 시종일관 특정 문법역으로 나타나는지 제안하는 'Jackendoff의 연결이론(Linking Theory)'과, 주어의 문법역에서 어떻게 의미역이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Fillmore(1968: 33)의 주어 위계(Subject Hierarchy)' 가 가장 두드러진 제안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illmore(1968)의 제안을 받아드려 주어가 되는 의미계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는 그가 제안한 주어 선택 규칙이다.

(22) The Subject Selection Rule (SSR)

Of the coarguments of a predicate, the highest one on the TH(Thematic Hierarchy) is selected as the subject.

그는 술어의 동일한 절에서 공논항(coarguments)들의 의미역 사이의 계층적 관계에 의해 주어가 결정된다는 주어 위계를 제안한다. 아래의 (23)을 보자.

(23) Subject Hierarchy: Agent > Instrument > Patient

(23)은 좌향 될수록 주어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즉, 행위자가 도구보다 더 빈빈히 주어로 쓰여지고, 도구는 수동자보다 주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래 (24)는 주어 위계를 적용한 예문이다.

(24) a. <u>John</u> broke <u>the window</u>.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A hammer broke the window.

c. John broke the window with a hammer.

d. *John and a hammer broke the window.

(24a)에서 주어 'John'은 행위자역이고, (24b)의 주어 'A hammer'는 도구역이다. (24c)는 한 문장 안에서 행위자역인 'John'과 도구역인 'a hammer'가 함께 나타나는데, 이 경우 주어 위계에 따라 행위자 'John'이 주어가 되며, (24d)는 행위자역과 도구역이 등위되어 주어로 나타날 때, 이 문장은 비문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10]

그러나, Fillmore의 의미역 개념은 Croft(1998)와 Levin과 Rappaport Hovav(2005) 그 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의미역들이 상정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고, 각 의미역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따라서 Fillmore의 주어 위계는 주어 논항과 의미역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2.2. Dowty(1991)의 원형역 접근(Proto-role Approach)

Fillmore(1968)의 분석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된 여러 가지 접근들 가운데 Dowty(1991)의 원형역 접근(proto-role approach)을 살펴보도록 하자.

Dowty는 논항 실현은 술어에 의해 논항으로 사용되어진 어휘의 함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진다고 제안한다. 즉 주어가 될 수 있는 의미논항은 어휘적 함위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여기서 함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원형 행위자역에 기여하는 것과 원형 수동자역에 기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주어와 더불어 중요한 의미논항을 갖는 목적어 역시 어휘 함의의 간단한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원형 행위자 함의를 가장 많이 갖는 논항이 주어로 선택되어지고, 원형 수동자 함의를 가장 많이 갖는 논항이 목적어가 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10) Chomsky(1981: 36)는 다음과 같은 의미역 기준을 제안한다.
"Each argument bears one and only one Θ-role, and each Θ-role is assigned to one and only one argumen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5) a. X murders Y.
b. X nominates Y.
c. X interrogates Y.

위의 예문은 X가 의지를 가진 행동을 하고, (25a)에서 죽고, (25b)에서 직책을 맡고, (25c)에서 질문에 답을 하는 등의 Y가 겪는 사건이 발생케 하는 원인이 된다. 그는 위의 예문을 바탕으로 두 가지 원형의미역에 기여하는 함의의 속성을 상정한다(Dowty 1991:572).[11)]

(26) Contributing properties for the Agent Proto-Role:
a. Volitional involvement in the event or state
b. set[i]ence [*sic*] (and/or perception)
c. causing an event of change of state in another participant
d. movement (relative to the position of another participant)

위에서 설명하는 원형 행위자역은 사건이나 상태에 의지적으로 개입해야하고, 지각하여야 하며, 사건이나 다른 참여자의 변화를 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참여자의 위치와 관련하여 이동해야하는 속성을 가진다.

아울러 그는 주어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논항 선택원리(Argument Selection Principle, ASP)를 제시하였다.

(27) Argument Seletion Principle (ASP)
In predicates with grammatical subject and object, the argument for

---

11)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원형 수동자역이다.
Contributing properties for the Patient Proto-Role:
a. undergoes change of state
b. incremental theme
c. causally affected by another participant
d. stationary relative to movement of another participan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which the predicate entails the greatest number of Proto-Agent properties will be lexicalized as the subject of the predicate.

그는 위의 논항 선택 원리를 통해 문법적 주어와 목적어를 가진 이항술어는 원형 행위자역 속성을 가장 많이 수반하는 논항이 주어로 어휘화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Dowty 1991:576). 아래의 예를 보자.

(28) a. The boy broke the window.
b. 함의된 속성의 개수

break	the boy	the window
	의지적 개입	상태변화 겪음
	감지	인과적인 영향 받음
	상태변화 야기	
	원형 행위자 함의 3+	원형 수동자 함의 2+

위의(28)의 ‘the boy'는 원형 행위자역 함의의 4가지 속성 가운데 의지적 개입과 감지, 상태변화 야기 등 3가지 속성을 가지므로 주어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Dowty의 분석을 논항에 의미역을 할당하는데 적용한다면, 각 논항들에 특정 의미역을 할당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 위의 (28)예문과 같이 함의 속성을 계수하여 원형 행위자역에 해당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가진 논항이 주어가 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논항이 행위자적일수록, 의미위계 상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Fillmore(1968)의 주어선택규칙(SSR)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Dowty의 분석은 논항의 의미역에 명칭을 붙일 필요를 없앴다는 점과 의미역을 분류하는 기준의 모호성도 배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미역을 설명하는 접근들 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분석은 ‘marry', 'meet', ‘resemble'등의 대칭술어와 'abound', 'swarm', 'resound'와 같은 술어를 갖는 문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래 (29)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0)의 예문을 보자.

(29) a. John met Mary.
b. Jenny married Tarry.
c. Tom resembles Clinton.

(30) a. Bees swarm in the garden.
b. The garden swarms with bees. (Dowty 2000:114)

(29)의 예는 동사의 공논항이 서로 동일한 원형역 함의를 갖기 때문에, Dowty의 분석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9a)에서 'John'과 'Mary'는 동일한 정도의 행위자성을 가지고 만남(이라는 사건)에 참여한다. Dowty의 주어 선택 규칙에 따르면, 'John'과 'Marry'는 동시에 주어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실상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다.

(30)의 예는 어떠한가? 먼저 동사 swarm의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12]를 살펴보자.

(30) swarm (대상, 장소)

Dowty의 논항실현 규칙에 따르면, '벌들(bees)'이 '정원(the garden)'으로 향하는 이동성을 갖춤으로 인해 좀 더 원형 행위자적이기 때문에 '벌들'만이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소논항인 정원 역시 주어가 될 수 있는데 Dowty의 분석으로 이를 설명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

후에 Dowty(2000)는 그는 이러한 문장의 논항실현은 주제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3절에서 주제성이 주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2.3. 논항의 주제성과 주어

12) 논항구조는 술어의 술어논항관계의 표상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논항이나 명사구의 주제성이 논항실현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은 아니다. Levin and Rappaport Hovav(2005), Wunderlich(2006)는 술어에 의해 나타나는 사건의 본질로부터 파생되는 논항의 의미역과 생물성(animacy)이나 인칭(person) 혹은 한정성(definiteness)등의 논항의 속성은 주어논항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주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주어에 있어 주제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해 보자.

대개 문장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 "무엇"이 문장의 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Kuno(1972, 1987)와 Reinhart(1981)는 '문장이란 무엇인가'로써 주제를 정의한다. 아래 (31)의 예를 살펴보자.

(31) a. John loves cats.
b. Beavers build dams skillfully.
c. There is a woman sick.
d. A woman stepped on me on the subway.

위의 예문은 '무엇에 대한 예시인가'라고 물었을 때, (31a)는 'John'과 (31b)는 '비버들'에 관한 것으로 이것들은 각 문장의 주제에 해당한다. 이 두 문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보통 주어가 문장의 표시되지 않은 주제라는 점인데, 이와는 달리 (31c)와 (31d)의 예시는 주어가 비주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1c)의 예문은 새로운 상황을 소개하고 있지만, 주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31d)의 예문 역시 주어가 비한정적이기 때문에 주제로 여겨질 수 없다.

위의 예시에서 보여지 듯, 전형적인 주제문장은 주어의 내재적 속성이나 특징을 기술하는 반면, 비주제 문장은 담화에서의 '무엇'이나 '어떤 사건'을 소개한다. 그렇다면, 명사구의 어떤 특성들이 이러한 주제성에 기여하는지 종래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얻을 수 있다.

(32) 명사구/논항의 주제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① 1인칭 > 2인칭 > 3인칭
② 한정 명사구 > 비한정 명사구
③ 인간 > 생물> 무생물
④ 화자가 감정이입을 하는 개체 > 다른 개체

위의 내용은 좌향 되어 질수록 명사구가 더 주제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Dick(1978:32-36)은 주제성을 구성하는 우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인칭의 경우, 1인칭이 2인칭보다 상위에 놓이고, 2인칭이 3인칭보다는 상위에 놓인다고 제안한다. 또한 한정 명사구가 비한정 명사구보다 높은 까닭은 한정 명사구가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아는 것이기 때문이고, 생물성의 경우에 인간이 다른 생물체보다 상위에, 생물이 무생물보다 상위에 놓이는 것이 언어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아래의 예문이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33) a. I met you/John/the storm.
b. You met John/ the storm/?me.
c. John met the storm/?you/*me.
d. The storm net *me/*you/*John.

(34) a. ??A lake is in that valley.
b. There is a lake in that valley. (Langacker 1991:308)

널리 알려졌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주어는 행위자이다. Dowty의 분석에서는 비행위자 주어에서 마저 주어가 어느 정도의 행위자성을 띄는지 따져 보는데, 대칭술어가 있는 문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33)의 대칭 술어가 있는 예문에서 보다시피 정의에 의한 이것의 동료논항은 원형 행위자역이나 원형 수동자역 함의를 동일하게 갖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Dowty는 주어 선택 규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나, 주어가 위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의 주제성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된 조건을 살펴보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5) 주어가 되는 주제성 조건

만일 술어의 동료논항이 (거의) 동일한 원형역 함의를 갖는다면, 더 많은 주제성 논항이 주어가 되어 진다.

김성욱(2010: 103)은 위의 조건으로 추가하여 Dowty의 논항 선택 규칙을 보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36) 수정된 논항선택규칙(The Revised Argument Selection Rule)

수정된 논항 선택 규칙(RASR)은 다항술어에서 원형 행위자역 함의를 가장 많이 가진 논항이 주어로 선택되어지고 원형 수동자역 함의를 가장 많이 가진 논항이 목적어로 선택되어 질 것이다. 만일 핵심 논항들이 (거의) 동일한 원형역 함의를 갖는다면, 더 많은 주제성을 갖는 논항이 주어로 선택되어 진다.

그렇다면 위의 수정된 논항선택 규칙을 바탕으로 하여 앞서 문제가 되었던 예시들을 살펴보자.

(37) a. John met Mary.

b. Mary met John.

c. John and Mary met.

(37)예문은 대칭술어 'meet'가 쓰인 문장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원형 행위자역을 동등하게 가진 경우이다. (37a, b)는 진리 조건적(truth-conditionally)으로 동일하지만, 정보 꾸러미의 관점(information packaging)에서는 그렇지 않다. (37a)는 'John'의 관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기술한 것으로 'John'이 소통적 명사구로써 주제가 된다. 한편 (37b)는 'Mary'의 관점에서 같은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써 'Mary'가 주제가 된다. 두 문장이 모두 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원형역 함의의 숫자가 두 논항사이에 동일한 경우, 주제성을 가진 논항이 주어로 선택되어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와 같이 주어는 술어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분석되었듯이, 주어는 술어에 의해 의미역을 부여받기도 하고, 주제성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논항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는 주어는 문장에서 술어와 원초적으로 관련되어지며 그 의미를 완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3. 화용적 분석

이 장에서는 언어사용을 정보전달의 초점을 맞춰 화자와 청자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화자는 특정 담화의도를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정희자(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주어가 갖는 화용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주어와 서술어 도치

주어와 서술어 도치는 동사를 기준으로 하여 주어를 문미로 보내고 서술부의 요소들을 문두로 이동시키는 현상을 가리킨다. 도치의 유형으로는 분사구 도치, 부사구 도치, 형용사구 도치가 있다.

정희자(1996: 236)는 화자가 담화에서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를 도치시키는 목적은 의사소통 역량[13]이 낮은 구 정보를 문두로 이동시키고, 의사소통 역량이 높은 신정보를 동사의 뒤로 이동시킴으로써, 청자에게 심리-인지적 부담을 덜어주며 신정보의 전달과 초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제안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38) a. Last night we invited seven guests to the party.
b. Among the guests sat John and Mary.

(38b)에서 the guests는 앞선 a에 언급된 'the seven guests'를 지시하는 구정보이다. 청자가 'party'에 초대된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John and

13) 의사소통 역량이란 문의 각 요소가 의사소통 진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능 개념이다. 화자의 생각을 이루는 각 요소는 의사소통 역량이 낮은 것 부터 높은 것 순서로 배열되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은 화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Mary' 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문두의 위치에서 문미로 후치하고, 주어진 정보를 전하는 'among the guest' 를 문두에 전치함으로써 청자의 이해를 돕고 두 발화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주어와 분사구 도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39) a. Hanging in the hallway was a portrait of the President.
b. Counting to five was little John.

다음은 화자가 강조하려는 초점에 청자의 주의를 모으는 동시에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39a)에서는 'a portrait of the President'를 (39b)에서는 'little John'을 초점으로 두어 동사 뒤로 후치하였다. (39a)에서 전치된 'Hanging in the hallway was'에서 'hanging'은 미완료(지속)의 상적의미를 전달하여 'a portrait of the President'의 상태를, (39b)에 전치된 'Counting to five'에서 'Counting'은 'little John'이 행동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낸다.

부사구의 도치는 화자가 어떤 장소나 시간에 출현하는 지시자를 초점으로 제시하기 위해 문미로 후치하는 하고 부사구를 문두에 전치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40) Into the garden ran the cat.

부사구 'Into the garden'과 명사구 'the cat'은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실체를 나타내지만, 화자는 'the cat'을 초점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It was the cat that ran into the garden'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다. 후치된 명사구가 전하는 초점정보는 부가의문문으로도 잘 나타난다.

(41) a. In the room are Mary and her sister, aren't they?
b. *In the room are Mary and her sister, aren't there?

형용사 도치는 화자가 비교급 또는 최상급의 형용사를 문두로 전치하고 주어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사의 뒤로 후치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42) a. Easier for us to solve would be a problem from number theory.
b. Most embarrassing of all was losing my keys.
c. Equally difficult would be a solution to Russell's paradox.

위의 예문들은 비교급 또는 최상급 형용사가 나타내는 지시자는 선행문에서 언급된 지시자에 닻 내리기가 되었고(anchored), 담화상 주어진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의 정도가 낮다. 반면에 동사의 뒤로 후치된 명사구는 신정보를 전하며 의사소통 역량의 정도가 높은 요소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역량이 낮은 구정보 요소를 문두로 전치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율성을 높인다.

3.2. 주어 외치

주어의 외치는 절주어를 문두에서 문미로 후치하고, 원 위치인 문두에는 형식상의 주어인 it을 두는 것을 가리킨다. 화자가 담화에서 절주어를 문미로 외치하는 목적은 절주어의 내용이 자신의 신념과는 무관하게 그 내용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경우는 주로 비사실성 자동사를 동반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43) a. It seems that the professor took bribes.
b. It appears that the professor took bribes.

위의 예문은 화자의 신념과는 무관하게 that이하를 초점을 두어 청자의 주의를 모으려 하는 것이다.

주어의 외치는 절주어가 형용사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절주어의 사실성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그 내용에 초점을 두어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절주어를 외치하고 'likely', 'possible', 'probable'등과 같은 비사실성 형용사를 사용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4) a. It is likely that the project will be taken over by John.
b. It is possible that the professor took bribes.

요약하면, 절주어의 내용은 화자나 청자에게 알려진 정보이고, 화자가 그 정보의 사실성을 믿는 경우에 절주어를 문두에 두고 신정보를 문미에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신념과는 무관하게 내용에 초점을 두어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절주어를 문미로 외치한다. 결국 절주어의 외치는 화자의 담화의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3.3. 주어 생략

주어의 생략은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한 것과 언어사용의 관습적 동기에 의해 비롯된다. 언어의 경제성이란,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쉬운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이에 따라 언어의 표현들이 점차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의 생략은 같은 요소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서 혹은, 언어 표현의 잉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아래의 (45)의 예를 보자.

(45) a. He got in late and (he) missed the meeting
b. (You) leave me alone.

(45)의 a는 주어 John은 두 번째 문장에서 대명사로 대체 되고, 그 다음 문장은 명령문으로써 주어 You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생략은 대개의 경우 복원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맥락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45a)의 경우 and, but, or등의 접속사와 함께 사용되는 문맥적 맥락에 의한 주어생략이고, (45b)의 경우는 상황적 맥락에 의해 명령문으로 이해되어지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주어가 생략되는 관습적 동기들을 살펴보자면, Tomas(1979:46)는 언어활동에서 평서문은 무표적 성분(unmarked member)인 인칭대명사 'I'와 'You'가 자동적으로 대화문맥의 참여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담화에서 생략되어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미적 혼돈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제안한다. 아래 (46)의 예를 보도록 하자.

(46) a. ___ Want some coffee?
b. ___ Had a good time, did you?
c. ___ Hope he's there.

위의예문에서 보다시피 'I', 'You'의 생략은 비격식적 표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Haiman(1983:782)은 담화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는 전달문의 길이와 일치하고, 사회적 거리가 가까우면, 전달문의 길어도 짧아진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I'와 'You' 외에도 문장의 주어가 'it' 나 'There'과 같은 dummy주어일 때도 주어는 생략되어 나타난다.

(47) a. ___ Doesn't matter.
b. ___ Serves you might.
c. ___ Must be somebody waiting for you.

위의 (46)와 (47)의 예문도 마찬가지로 맥락에 의존적인데 관습적 동기에 의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언어적 문맥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언어 외적인 상황적 맥락에서 복원되어질 가능성을 기반으로 생략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비명사구 주어

지금까지 우리는 주어가 가지는 다양한 속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1장에서는 주어의 다양한 통사적 속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2에서는 외부논항으로써 의미역을 갖는 주어에 대해서 의미적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았으며, 3에서는 주어의 통사적 특징에 해당하는 문장에서의 도치와 외치, 또한 생략되어지는 경우를 살펴보므로 주어가 정보전달과 문맥에 의존하여 화용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논의되었던 주어는 명사구(NP/DP) 주어를 적용하여 설명한 내용으로써 다양한 유형으로 실현되어지는 주어들에 대하여는 언급 하지 않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이 장에서는 Aarts(2008)를 중심으로 주어로 실현될 수 있는 명사구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에 대해 제시하고, 이들이 소위 '주어는 보통 명사구이다(Aarts: 2008)'라는 제안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실증적 예시들을 살펴봄으로써 주어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볼 것이다. 또한 앞서 논의한 주어의 속성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적용하여 비명사구 주어가 어떻게 주어로써 쓰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주어로 실현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48) a. [The hedgehog] ate the carrot.
b. [A rat] bit my toe.
c. [This shoe] hurts me.
d. [Teachers] never lie.

위의 (48)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사구 주어에 해당하는 예문들이다. 그러나 주어는 다른 유형으로도 실현되어질 수 있다. 아래의 예는 전치사구 주어에 해당하는 구문들이다.

(49) a. [Under the stairs] was a safe area to be during the war.
b. [Outside the fridge] is not a good place to keep milk.
c. [After Saturday] would be a good time to go away for a few days.
d. [Between eleven and midnight] suits me alright.

위의 (49)은 전치사구로 실현된 주어로 일반적으로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고, 연계동사 be와 주로 쓰이는 제한된 분포성을 지닌다. 이어지는 (50)예문의 주어는 각각 형용사와 부사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50) a. [Restless] is what I would call him.
b. [Cautiously] is how I would suggest you do it.

이 외에도 주어는 절로써 더 빈번하게 쓰이는데, 아래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어는 정형절(finite clauses)로 실현 되어질 수 있다.

(51) a. [That he will go to New York soon] is obvious.
b. [Because he is generous] doesn`t mean that he is rich.
c. [What the terrorists said] puzzled the police.
d. [Why she consented] remains a mystery.

(51)의 (a)~(b)의 주어는 접속사절에 해당하고, (c)~(d)는 *wh*-의문사로 시작하는 절 주어이다. 또한 주어는 *to*부정사절, 원형부정사절, -*ing*분사절, 그리고 소절 등과 같은 비정형절(infinite clause)로도 나타난다. 아래 (52) 예문을 보자.

(52) a. [For Judith to buy that house] would spell disaster.
b. [For us to understand the issues] requires a major mental effort.
c. [To be a good teacher] is more difficult than people think.
d. [To see her] is to love her.

위의 예문은 *to*부정사절이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로써, (a)~(b)는 *to*부정사의 주어에 해당하는 'for ~'가 함께 있는 경우이고, (c)~(d)는 주어가 없이 *to*부정사 자체만 나온 경우이다. *to*부정사는 이 외에도 자체 주어는 없으나 *wh*-요소가 같이 쓰일 수도 있다.

(53) a. [What to read during the holidays] is the question all students are asking.
b. [Who to ask for permission] seems quite clear.

주어는 또한 원형부정사 즉, 동사의 원형절로도 실현되어진다.

(54) a. [Party the night away] is a nice thing to do.
b. [Turn off the tap] was all I did. (Quirk et al 1972: 74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arts는 위의 경우는 주어로 쓰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고, 쓰인다 하여도 비격식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든 화자들에게 받아드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ing*형태를 취하는 분사절이 주어로 쓰인 경우이다.

(55) a. [Otto playing the guitar] has made the whole family happier.
b. [Students walking on the roof] poses a safety risk.
c. [Going on holiday] always creates tensions.
d. [Running a business] is hard work.

(55)의 (a)~(b)는 자체적으로 주어를 갖는 경우이고, (c)~(d)는 자체주어가 없이 분사절이 주어로 사용된 문장이다. *to*부정사절과 마찬가지로 자체주어가 없는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주어를 추론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주어로 실현될 수 있는 유형은 소절(small clauses)이다.

(56) a. [The kitchen free of cockroaches] is a welcome prospect.
b. [Wall-to-wall carpets in every room] is the housewife`s dream.
(Quirk et al: 1972)

소절은 외현적 동사를 갖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be*동사가 생략된 경우라 보고, 항상 자체적으로 주어를 갖는다.

이처럼 주어는 명사구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유형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은 위에 열거된 주어의 유형을 PP와 CP, 그리고 AP, 이 세가지로 분류하여 소위 비명사구라 불리우는 이들이 어떻게 주어로 실현될 수 있는지 주어가 될 수 있는 표준 범주인 DP의 몇 가지 속성을 좇아 논의 하고자 한다.

먼저 비명사구 주어가 DP주어와 마찬가지로 동사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7) a. [Under the bed] is a cosy place to hide.
b. [That John is mean] is well-known.
c. [Angry] is a terrible way to feel.

위의 (57)는 (a)는 PP주어가, (b)는 CP주어가, 그리고 (c)에는 형용사주어가 사용되어 동사의 시제와 일치한다. 그러나 많은 언어에서 3인칭 단수의 일치 관계는 드문 까닭에, 실제적으로 위의 비명사구 주어들이 T의 인칭/수 굴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Levin(1989)는 PP주어에 대해, McCloskey(1991)는 CP주어에 대해 이들이 등위되어 주어자리에 나올 경우, 동사의 복수의 형태에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주어로 기능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58) a.[Under the bed] and [in the fireplace] are/*is not the best (combination of) places to leave your toys. (Levin 1989: 1015)
b. [That the march should go ahead] and [that it should be cancelled] have/*has been argued by the same people at different times. (McCloskey 1991: 564)
c. [Very brawny] and [very studious] are/*is what Cindy aspires to be.

위의 (58)예문은 제시된 주어들이 동사의 복수형에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등위된 비명사구 주어가 실질적으로 DP주어라는 증거를 제공한다.

둘째로, 비명사구 주어가 의문문에서 조동사와 도치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59) a. Is [Under the bed] a nice place to hide?
b. Does [after four] seem to suit everyone?

위 예문은 PP주어가 조동사와 도치되어진 것으로 두 문장 모두 문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P주어는 아래의 예문에서 보다 시피 의문문에서 조동사와 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될 경우 비문이 된다고 본다.

(60) a. *Did [that John showed up] please you? (Koster 1978: 53)
b. *Has [that we have arrived back at our starting point] proved that the world is round? (Adger 2003: 299)

위의 (60a)는 Koster(1978)가 제안한 예문이고, (60b)는 Adger(2003)에 의해 제안된 CP주어가 조동사와 도치되어지지 않는 예문이다. 그러나, Dalahunty(1983)와 Davies & Dubinsky(2006)는 위의 주장에 이이를 제기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61) a. Does [that the world is round] bother as many people now as it did 500 years ago? (Dalahounty: 1983)
b. Is [that I am a done with this homework] really amazing?
(Davies & Dubinsky 2006: 115)

Davies & Dubinsky(2006)는, 위의 예문이 문법적인 것은 운율체계(prosody)와 구의 무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법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60a)의 예는 CP주어가 모절의 술어에 비해 두 배로 길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고 보았고, (61a)는 다섯 개로 구성된 CP주어로써 열한개의 모절 술부를 이끈다. 따라서 문법적인 문장이라고 보았다. 즉, 무게에 대한 쟁점이 문법성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점검해 볼 통사적 연산은 주어 인상에 관한 것이다. 비명사구주어들이 DP주어와 같이 인상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NP주어의 인상은 NP가 격을 필요로 하거나, 시제의 형식자질과의 점검 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발생되어진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의 주어는 각각 PP, CP, 그리고 AP로 인상되어진 것이다.

(62) a. [Under the bed]$_i$ appears [t_i to be a good place to hide].
b. [That Shelby lost it]$_i$ appears [t_i to be tru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Very tall]$_i$ appears [t_i to be just how he likes his bodyguards].

Davies & Dubinsky(2006)에 따르면, 비명사구 주어는 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요소이다. 최소주의에서 위 예문의 주어는 D-자질이 부족하므로 시제의 핵의 D-자질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만 하고, 파생은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비명사구 주어는 명사구 주어와 동일하게 인상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연산 외에도 복수명사가 있는 절이거나, 핵어가 질량명사가 있는 문장에서 양화부사인 'equally' 허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들 수 있는데, Davies & Dubinsky(2006)은 비명사주어 역시 DP주어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주어자리에서 병렬되어 나타날 경우 양화부사인 'equally'를 문장에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63) a. [That he'll resign] and [that he'll stay in office] seem at this point equally possible. (McCloskey 1991: 564)

b. [Under the bed] and [in the closet] equally remind me of that game of hide-and-seek we played.

c. [Very tall] and [quaintly studious] equally bring to mind ny sixth grade science teacher.

위와 같이 주어 자리에서 병렬된 CP와 PP, 그리고 AP는 equally를 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DP주어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형절의 명사구는 강조 재귀대명사를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비명사구 주어 역시 강조 재귀대명사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명사구 주어는 어느 위치에서든지 강조재귀대명사를 허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Davies & Dubinsky(2006)는 비명사구주어에 해당하는 PP와 CP 역시 강조재귀대명사를 허가하는 역량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다음 (64)의 예문을 보자.

(64) a. Under the bed and in the closet are themselves reasonable places to stash the cash.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That Lesile arrived drunk itself put Kelly in a foul mood.

(64a)는 PP주어가 강조재귀대명사 'themselves'를 가지는 경우이고, (64b)는 CP주어가 강조재귀대명사 'itself'를 가지는 경우로 명사구 주어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비명사구 주어에 대해 Davies & Dubinsky(2006)를 바탕으로 이들의 주장에 따라 비명사구 주어 역시 DP주어의 구조적 위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DP주어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드렸으나, 학계에서 비명사구 주어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한 홍성심(2004)은 비명사구 주어는 사실상 문법적 기능과 관계를 완전하게 갖춘 '주어'는 아니며, 그 구조적 위치도 정형절인 TP의 지정어 위치가 아닌 TopP의 지정어 위치에 존재하는 화제로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위의 제안을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고 추후 연구를 위해 남겨두도록 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명사구주어 이 외에 상당히 다양한 유형의 주어가 문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이 마땅하다 사료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결 론

본 논문은 주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통사적,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분석을 적용하여 주어에 대해 고찰해 보았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DP주어 외에 실현되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비명사구주어들이 명사구적 특징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주어라는 용어가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을 지칭하기 까닭에 구조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구조적 관점 즉, 통사적 분석을 통해 주어의 속성을 분석을 해보았다.

먼저 통사적 분석을 살펴보면, 주어는 초기 생성문법에서 S절점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는 명사구로 정의되었으나, 생성문법에서 Larson(1988)에 의해 소개된 동사구 내 주어 가설을 통해 [Spec, VP]에서 [Spec, IP]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주어가 확대투사 원리에 의해 형태론적 자질을 점검받고자 [Spec, TP]로 이동하므로 TP의 지정어 위치에 발생하고, 대개 명사구(NP/DP)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둘째로 주어는 일반적으로 주격을 가지는데, 이는 이론상으로 정형절에서 격부여자인 INFL에 의해 c-command되어 주격을 배당받는 것에서 자질에 대한 점검으로, 그리고 복사로 발전되어졌다. 셋째로 주어는 자질복사(feature-copying)라 일컬어지는 통사적 운용에 의해 시제(T)와 [Spec, TP]가 일치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는 주어가 Yes-No 의문문에서 시제(T)가 주어의 앞으로 이동함으로 도치가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았고, 다섯째로 주어는 부가의문문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선행하는 문장의 형태에 기반을 둔 조동사와 대명사로 이루어지며, 조동사는 주절의 시제와 상, 법조동사와 일치해야하고, 대명사는 선행하는 평서문의 주어와 일치해야할 것에 대해 확인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어의 인상은 seem유형의 상승동사에서 주로 발생하며, 비정형절 또는 부정사절인 삽입절의 주어가 주절로 상승하여지고 여전히 삽입절의 주어로 해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장에서는 주어를 의미적 분석으로 살펴 본 바, 주어는 의미역할에 관련된 논항으로써 술어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술어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는 외부논항으로써 정의 되어졌다. 따라서 외부논항에 올 수 있는 다양한 의미역들을 살펴보았으며, 행동술어를 가지는 능동문에서 주어가 주로 행위자역이라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Keenan(1976)의 설명을 빌어, Fillmore(1968)가 제안한 주어 위계를 확인해보았다. 그러나 술어의 의미역을 정의하고자 하는 의미역 상정의 불분명한 기준으로 인해 주어위계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제기, 그 한계점을 보안하고자 Dowty(1991)가 제안한 원형역 접근(Proto-role Approach)를 살펴보았다. Dowty는 술어에 의한 논항들은 어휘적 함의에 의해서만 고려되어진다는 제안을 통해 주어는 원형행위자 함의를 많이 가지는 논항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그의 제안 역시 특정 술어가 있는 문장에서 주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제성을 갖는 논항으로써의 주어를 살펴보는 것으로 주어가 의미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어지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화용론적 분석을 통해 정희자(1996)의 제안에 따라 주어는 서술어와 도치되어 정보의 측면에서 의사소통 역량이 높은 요소인 신정보로써 사용되어지며, 이것의 목적은 청자에게 심리-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 전달과 초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주어가 문장주어일 경우에 외치되어지는데 이것은 화자의 신념과는 무관하게 내용에 초점을 두어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문장주어를 문미로 외치시키고, 형식상의 주어인 it을 문두에 두는 것으로 도치나 외치의 경우 통사적 연산임에도 불구하고 화용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료됨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주어는 종종 생략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같은 요소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서 혹은, 언어 표현의 잉여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명령문 또는 발화 환경과 언어학적 맥락에 의해 생략되어 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어 생략은 화자와 청자간의 담화 내용 가운데 청자에 의해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장에서는 주어가 명사구를 비롯한 전치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원형부정사구, 정형절, 비정형절, 그리고 소절 등의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인 주어의 범주인 DP외에도 이와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비명사구 주어들에 대해 살펴보므로 주어로 쓰이는 다양한 범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문장에서 주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논의되어온 현저한 요소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주어는 학교 문법에서도 동일하게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많은 문법교재와 독해교재에서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구성 된다' 라는 개념을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개하는 데에서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의 주부에 해당하는 주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영어 학습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까닭에 본 논문이 영어 문장의 주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를 바라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권현희. 2006. "영어 주어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욱. 2010. The Role of Topicality in Subject Selection. *영어영문학 연구* 52(4), 89-113.

김재량. 2010. "On the So-called PP Subject Constructions in English"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경숙. 1989. "영어의 문법기능과 의미역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영미. 1996. 경동사 성격에 관한 연구.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 113-34.

신인철. 2003.「영어통사론의 이해」서울: 한국문화사.

이인경. 2002. "영어 생략에 관한 담화·화용적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희자. 1996. 영어 담화에서 초점형과 어순변형. *Journal of Language Science* 3, 227-257.

최경순. 1997. "영어 소절의 통사구조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성심. 2010. Thematic Roles of Arguments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Journal of Linguistic Studies* 15(2), 235-246.

홍성심. 2004. On English Non-DP Subjects.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0(1), 205-222.

Aarts, B. 2008.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Hampshire, UK: Palgrave.

Adger, David. 2003. Core Syntax.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ker, Chris L. 1970. Notes on the description of English questions: the role of an abstract question morpheme. *Foundations of Language* 6:197-219.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Mouton, Hague.

_____ .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The MIT Press.

_____ .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ding*. Dordrecht: Foris.

_____ .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d Bindings. Cambridge Mass : MIT.

_____ .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1*. Cambridge: MIT Press.

_____ . 1994.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istics No. 5.* Cambridge: MIT Press.

_____ . 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 Occational Papers in Linguistic* 18. Cambridge, Mass: MIT Press.

_____. 2005. On Phases. Ms., MIT.

Com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asil Blackwell.

Croft, W. 1998. Event structure in argument linking. In M. Butt, and W. geuder, eds., The Projection of arguments: Lexical and syntactic constraints, 21-63. Stamford, Calif.: CSLI Publications.

Delahunty, G. 1983. But sentential subjects do exist. *Linguistic Analysis* 12, 379-98.

Dick, Simon. C. 1978. *Functional Grammar.* Amsterdam: North-Holland.

Dowty, D. R.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_____. 2000. 'The garden swarms with bees' and the fallacy of 'argument alternation.' In Y. Ravin, and C. Leacock, eds., *Polysemy: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 111-12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illmore, C. C. 1968. The Case for Case. In E. Bach and R. Harms(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Frawley, W. 1992. *Linguistic Semantics*.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Givŏ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Haegeman L., & Gueron, J. 2001. *English Grammar*. Oxford: Blackwell Publishers Inc.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Haiman, J.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781-819.

Huddleston, Rodney and Geoffrey K. Pullum. 2005. *A student`s Instruction to English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Keenan, E. L. 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In C.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Koster, J. 1978. Why subject sentences don`t exist. S. Jay Keyser (ed.). *Recent transformational studies in European languages*, 53-64. Cambridge, MA.: MIT Press.

Kuno, S. 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 case study from Japanese and English. Linguistic Inquiry 3, 269-320.

_____. 1976.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New York.

_____. 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 Ronald W. 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Larson, R. K.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91.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 2005. *Argument re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vin, R. 1989. On focus inversion: Syntactic valence and the role of a SUBJECT list. *Linguistics* 17, 1013-55.

McCloskey, J. 1991. There, it, and agreement. Linguistic Inquiry 22, 563-567.

Perlmutter, D. 1990.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Radford, A. 2004. *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Reinhart, T. 1981. Pragmatics and linguistics: An analysis of sentence topics. *Philosophica* 27, 53-93.

Riemsdijk, H. and E. Williams. 1986.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Shigeko Nariyama. 2004. Subject ellipsis in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36, 237-264.

Stanley, Dubinsky, and William D. Davies. 2006. Sentential (and Other Non-nominal) Subjects in English. *Study in Modern Grammar* 45, 1-32.

Taverniers, M. 2005. Subjecthood and the notion of instantiation. *LANGUAGE SCIENCE* 27(6), 651-678.

Tomas, A L. 1979. Ellipsis: The Interplay of Sentence Structure and Context *Lingua* 47:43-68.

Van Valin, R. D., Jr. 2006. Semantic macroroles in Role and Reference Grammar. In R. Kailuweit and M. Hummel, eds, *Semantische rollen*, 62-82. Tubilngen: Narr.

Wundierlich, D. 2006. Argument hierarchy and other factors determining argument realization. In I. Bornkessel, M. Schlesewsky, B. Comrie, and A. D. Friederici, eds., *Semantic role universals and argument linking: Theoretical, typological, and psycholinguistic perspectives*, 15-52 Berlin: Mouton de Gruyter.

Collection @ chosun